

“건강한 의사가 불편한 환자를 찾아 간다”

우리집 의원 백인미 원장

글 · 송호필(시인)/사진 · 황남이(자유기고가)



‘독거 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http://www.silvermed.or.kr>)의 운영위원장으로 사랑과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백인미 원장.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행당동 우리집의원 진료실 입구에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안내 글귀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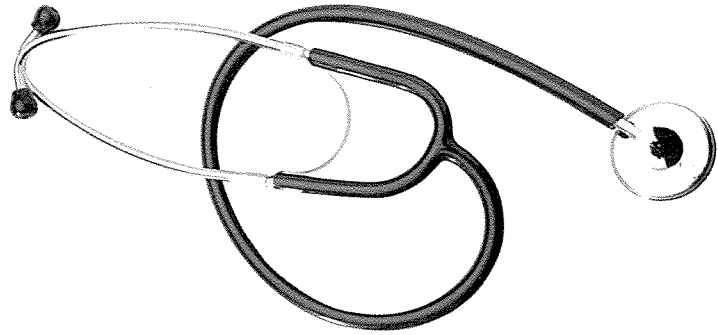
‘진료 전, 걸옷을 벗어 간편한 복장을 취해주세요. 65세 이상 환자는 물리치료가 무료입니다.’

65세는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의 기준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11월, 노인 인구 3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에 이르러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데 비해 의료, 여가생활 등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구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서울만 해도 어림잡아 10만 명 이상이고, 전국 180만 명 이상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의료와 복지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풍과 노환 같은 각종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며 방치된 상태에 있다.

백인미 원장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 바로 이 독거노인들에게 백인미 원장과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 운동본부 4백여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5백



여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가 발족된 지 4년 정도가 됐는데 함께 참여하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그리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인미 원장은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과 또박또박 분명하고 시원한 말씨로 대답했다. 이는 천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몸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운 어르신 환자들을 오랫동안 돌봐왔던 경험이 한몫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백 원장의 활발한 성격은 후천적인 면이 더 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 진료를 할 때, 저는 환자 어르신들하고 항상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몸이 불편하신 것도 큰 고통이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 자체가 반갑고, 누군가 대화 상대가 그리웠던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백인미 원장은 ‘문제 중심’이란 말을 했다. 단순히 독거노인 환자를 찾아가 병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진다는 것이다.

즉 상처를 보고, 그것을 치료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상처를 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것을 없애거나 개선해주는 일을 우선 한다는 것으로, 홀로 된 노인 환자들 대부분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작은 문제로 비롯된다는 게 백 원장의 판단이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눈과 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계단을 헛딛거나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결국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자리에 눕다보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설조차 제대로 해결 못하는 중환자가 되어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최소한의 거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환자 스스로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돕는 것이 백인미 원장의 ‘문제 중심’의 사고이며 진료 행위인 것이다.

오늘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기까지 백인미 원장의 사연과 이력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백 원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전공으로 대학원을 마친 뒤 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조교로 있으면서 나름의 보람을 얻으며 생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명처럼 다가온 뇌종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이 그녀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다.

다행히 종양은 초기에 발견됐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수술을 마친 뒤 백 원장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때 창 밖에 총총한 별을 바라보며 그녀는 비로소 ‘아, 살았구나!’ 라는 탄성과 함께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많은 어려움 끝에 대학원까지 졸업한 백인미 씨는 결국 두 번의 도전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의사의 꿈이 특별한 계기로 비롯되었던 터라 백인미 원장



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정의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산재단 중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 백인미 원장이 '한국 최초'의 방문 진료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제공한 분은 김녹호 서울대 교수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산파역을 맡기도 했던 김 교수는 증풍을 앓고 있던 장인이 환자 취급도 못 받은 채 방치돼 있는 의료현실에 자극을 받고, 아끼는 백 원장에게 사당 의원에서 방문진료센터를 운영해보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백 원장 또한 수련의 때, 동네 병원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도 할머니들이 멀리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찾아나서는 의료 서비스를 펼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많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지원해주면 많은 독거노인 분들이 저희 본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복지관 그리고 우리 본부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독거노인 환자분들을 찾아내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복지사가 함께 방문 진료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물질적, 재정적 뒷받침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우선 큰 비용

이 소요되지 않는 방문 진료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백 원장의 말은 거의 호소 조에 가까웠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산동네를 오르고, 비좁은 골목길을 뛰면서 버려진(?) 환자들을 찾아 나서면, 온갖 악취와 처참한 광경을 대하는 것은 오히려 덜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좋은 자리와 보장된 명예와 권위를 벗어던지는 일, 안락하고도 편한 삶을 마다하고 자신이 의사가 된 꿈을 간직하며 실천해 나가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백인미(白仁美),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어질고 아름다운 의사의 길을 걷는 백 원장을 보면서 1999년 노벨평화상의 '국경없는 의사회'가 떠올랐고, 훨씬 이전의 체 게바라와 중국에서 백구은 선생으로 불렸던 닥터 노먼 베클슨의 이름이 떠오른다.

권위의 경계를 허물고 '건강한 의사가 불편한 환자를 찾아간다'라는 모토를 실천하는 백인미 원장의 아름다운 발걸음은 오늘, 거동이 불편한 신월동의 한 독거노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